



백두대간 종주 제9보

가을을 맞이하는 백두대간을 시작하면서 >

광전재료과 사무관 최월영

<제17회차> 문경과 수안보를 있는 3번 국도 이화령에서 조령(세재)를 지나 하늘재까지

* 일시, 소요시간 : 2003. 10. 12(일) 04:17~14:10 (10시간)

* 행정구역 : 경북 문경/ 충북 괴산

* 종주코스 : 이화령~조령상~문바위봉~조령3관문~마혜봉~월항삼봉~하늘재

가을을 맞이하는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는 토요일 저녁의 동대문시장을 벗어나 우리를 태운 고려관광버스는 고속도로를 힘차게 질주하고, 종주대원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내일의 산행을 점검해보면서 잠을 청한다

2주전에 내려 왔던 그곳을 밤에 와서 서성이니 가고 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시작과 끝은 만남의 문제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

새벽 4시 버스 내에서 4시 30분에 출발할 것이라는 이구대장님의 사전예고에 따라 버스에서 내려 배낭을 찾아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머리띠·수건을 챙겨 출발선에 도착하니 먼저 나가려는 경주마와 같은 대원

들의 열기가 새벽의 공기를 데우고 있다. 4시 17분 대장님의 출발신호에 따라 대간 마루금을 올라서니 4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해놓고 벌써 나간다고 뒤에서 불 일보고 있던 순진파들이 난리가 났다. 오늘 따라 새벽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진다.

허걱허걱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하고 묵묵히 태고의 기운을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 이 무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다. 오로지 가야 하는 길이기엔 견고 있노라고

04시 30분 헬기장이 나오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한다.

5시 17분 조령산 정상에 나오고 가이드왈 지금부터는 급경사로 주의해서 진행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나무와 로프에 의지하며 어둠이 걷히는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한다. 저 멀리 왼쪽은 괴산군 원풍리 마을이구요 오른쪽은 조령 제1관문이라는 가이드의 말을 귓가로 흘리며 조심조심 급경사 구간을 내려간다. 신선암을 지나면서 어둠이 걷히고 있는 조령산을 바라보니 새벽 안개속에 묻혀 오늘도 절

경을 반만 보고 지나가는 아쉬움을 다음으로 미루어 여만 한다. 내 다음에 대간 산행을 할 경우에는 진부령부터 시작하고 당일 종주를 하여 우리나라의 이름답고 힘찬 산야를 밝은 곳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다고 생각해 본다. 대번 산행 절경의 3분의 1은 어둠에 빼앗기는 아쉬움을 달래며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걷기 시작하고 있었고 저 멀리 조령 3관문의 자락이 보인다. 7시 57분 조령약수에 도착하여 거푸 2바가지의 물을 목으로 공급하니 움츠렸던 오장이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허기가 잡자기 느껴진다. 조령3관문 잔디에는 스피커에서 대금소리가 울려 퍼지고 공터의 주막에는 먼저 도착한 수지팀들이 좁쌀막걸리를 먹으면서 나를 반긴다. 우선 막걸리 한 사발을 얻어먹고 뒤에 오는 삼천왕과 함께 아침 식사를 위해 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인다.

곧 이어 천안팀이 도착하길래 우리 사천왕 멤버들은 어디 오느냐고 물어보니 곧 도착할 것이라 하므로 눈은 계속적으로 조령약수를 향하지만 이왕 끓인 라면을 다 먹고 조금 기다리니 반가운 얼굴들이 저 멀리 조령약수에서 손을 흔든다. 오는 도중 송이버섯으로 요기까지 하고 쉬면서 오느라 늦었다나. 혼자서 가는 사람은 송이버섯도 없다고 등산지도를 출판하는 고산자 누이께서 약을 올리고 빨리 라면 끓이라는 성화에 빨리 워도 죄라고 투덜거리면서 조령약수로 맛있게 라면을 끓이니 고산자 누이가 몰래 다가와 송이 반쪽을 손에 쥐어주며 “월영이 니 즐라고 숨겨 왔다”고 하네요. 누이의 고마운 마음을 라면에 담아 오늘도 즐거운 아침식사를 끝내고 조령3관문을 배경삼아 증명사진을 몇장 찍고 마페봉을 향하여 호흡을 조절하

면서 능선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조령제3관문(鳥嶺第三關門)은 문경새재라고도 하는 데 새가 날기 어려운 곳이라 하여 새 조(鳥)자를 쓴다고 한다. 영남의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려면 필히 지나쳐야 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 주막도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때 고시니 유키나와(小西行長) 부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충주에서 신립장군과 격전을 벌여 신립장군이 패했던 비운의 현장으로 그 이후 제1관문, 제2관문을 설치하여 왜군의 재침략에 대비했다고 한다. 제1관문 옆에는 왕건 촬영을 위한 궁 하나가 있다고 하지.

9시 15분 관문옆 산성길을 벗어나 마페봉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항상 아침밥 먹고 찾아 오는 경사길로 대간코스는 우리나라 산의 형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손색이 없다.

9시 45분 마페봉에 오르니 정상 팻말이 마페봉, 마역봉(927m) 등으로 적혀 있어 혼란스럽다. 전설에는 어사 박문수가 이 봉우리에 마패를 걸러 놓았다하니 마패봉이 진짜라고 증장천왕이 결론을 내리고 다음 구간을 향하여 전진한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길과 다르게 완만한 능선과 산성을 끼고 나무잎의 색이 바뀌는 능선을 벗삼아 전진한다.

동암문을 지나 11시 20분 부봉 옆구리에서 물 한모금 마시고 숨을 들리는 데 동네에서 올라온 아저씨 세분이 부봉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 와야 한다고 하면서 우회길로 가야 한다고 일러준다. 비가 한 두방울 떨어진다. 여우비가 내린다. 이정표에는 ‘부봉 0.5k, 주출산 3.5km’라고 적혀있다. 주출산 자락이라 그런지 암릉지대가 나오고 로프가 치렁치렁 바위에 걸쳐

있어 위험지대라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중간에 암장에 걸터앉아 베낭속의 냉장고를 열고 오늘의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는 데 부봉 옆구리에서 만났던 세분이 또 지나가길래 맥주를 권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문경시 부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문경을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신다. 굴바위를 지나 하늘재에 도착하니 오후 2시가 다 되었다. 오른쪽 문경쪽은 포장길이고 왼쪽 충주쪽은 비포장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확실하게 해 놓았다. 다음 구간인 포암산을 향하여 사진을 찍고 충주쪽 미륵리를 향한 비포장길은 나무숲이 좋아 역시 포장길 보다는 산 사람들은 비포장이 좋다고 뒤에서 증장천왕이 너스레를 떠다. 세계사와 미륵사지를 지나 주차장에 도착하니 오후 3시. 이구대장님이 끓여놓은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오늘의 산행을 마감한다.

- <제18회차> 경북 문경의 하늘재에서 차갯재까지
 * 일시, 소요시간 : 2003. 10. 26(일) 04:47~12:55(8시간)
 * 행정구역 : 경북 문경
 * 종주코스 : 하늘재~포암산~부리기재~대미산~문수봉갈림길~차갯재

2003년 10월 25일 저녁 9시 48분 토요일의 느슨한 피곤을 느끼며 범계역을 향하여 출발한다. 중간에 24시 김밥집에 들러 김밥 2줄을 베낭에 담은 것도 잊지 않는다.

동대문운동장 8번 출구에 도착하니 오늘도 내가 제일 늦게 도착하고 사천왕이 다 모였다.

이구대장님의 오늘 산행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다. 요즘 산속은 낙엽이 많이 쌓여 있으므로 산불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여벌의 양말도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독도에서 주의할 구간은 포암산을 지나 대미산 가늘 길에 만수봉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길을 잡아야 하고 대미산을 지나면서는 좌측으로 문수봉을 향하여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헬기장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7차 대간 종주대도 이제는 총 구간의 반을 넘기면서 모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회장단을 이번 회차가 끝나는 안생달에서 뽑아 줄 것을 부탁한다. 일요일 새벽 3시 오늘의 산행기점인 하늘재에 도착하니 2주전에 밟았던 곳이라 야밤이지만 낮설지가 않다. 이구 대장님께서 5시에 산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4시 30분까지 조용히 취침해 줄 것을 선언하자 억지로 몽롱한 정신을 의자에 기대니 어느새 코고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4시 45분 기상과 동시에 버스 밖으로 나가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서늘한 바람이 등을 때린다.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버스 짐칸에서 베낭을 찾아 헤드랜턴을 머리에 부착하고 스틱을 조절하여 출발준비를 하며 대장님의 출발 명령을 기다린다. 4시 47분 대원들의 성화에 이구대장의 출발 명령이 떨어졌다. 13분 일찍 출발.

잠이 덜 깬 몽롱한 의식을 일깨우려는 듯 시작부터 가파른 언덕이 긴장감을 감돌게한다. 가쁜 숨을 몰아 포암산(962m)에 도착하니 시계는 5시 36분을 지나간다. 고갯마루 올라오느라 가쁜 숨을 고르고 만수봉 갈

림길을 향하여 가파른 고갯길을 조심스럽게 전진하면서 저 멀리 여명이 밝아오는 동쪽 마루금을 바라보며 오늘도 안전산행을 기원해 본다. 산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햇살이 나뭇가지를 건드릴 때 가지개를 켜는 나무들의 숨소리를 느껴 보셨나요? 새벽이슬을 머금고 나아가는 산 나그네의 몸 위로 새로운 햇살의 기운이 들어올 때의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7시 40분 최선봉으로 전진하던 수지팀에서 터를 잡고 아침을 먹고 있는 구룡을 지나 고갯마루 햇벌이 잘 드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 아침밥상을 차리고 라면을 끓이면서 먹는 백세주 한잔에 아침의 피로를 날려버린다. 약 1시간의 아침만찬을 끝내고 대미산을 향하여 적당히 불어주는 바람을 등에 업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10시 4분 문경시 중평리와 체천의 용하구곡을 가르는 부리기재를 통과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1000고지 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흐르는 땀을 어찌지 못하던 내 이마에서도 땀을 막아버렸다. 그늘에 들어서면 한기를 느낄 정도로 산속의 날씨는 내려가고 있다. 11시 대미산(1,115m) 정상에 도착하니 오늘의 큰 고개는 다 올라왔다는 안도감에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11시 44분 낙엽송 지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나무를 심는 것보다 키우는데 노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하늘을 향하여 솟아 있는 낙엽송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면서도 음산한 기운은 나무의 기를 느끼게 한다. 12시 40분 송전담을 지나 차갯재에서 안생달로 내려가야 하느냐 작은차갯재에서 안생달로 내려가야 하느냐로 설왕설래하다 수지팀이 저 멀리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갯마루를 올라서니 바로 아래 작은 차갯재가 있다. 작은 차갯재에

도착하여 마지막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구간인 황장산을 바라본다. 시계는 12시 55분을 지나가고 김치찌개가 있는 안생달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안생달에는 지방 토속주인 상황버섯주 공장이 있어 대간종주 대원들의 입맛을 적시고 기념으로 여러병 사서 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다음부터는 겨울채비를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산행을 마감한다.

■ 대간길에 만나는 이야기들

○ 옛고개 문경새재

이화령에서 조령산을 타고 제3관문인 조령관에 도착하면 옛고개 문경새재다. 여기가 산들이 높고 험준하여 새들도 날아 넘기 어려운 곳, 또는 역사가 많은 곳, 혹은 새로 닦은 길이라 새재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선 초부터 영남에서 한양을 오가는 가장 큰 대로(영남대로)였던 새재 길 중턱에는 경상감사가 교체될 때마다 서로 만나 업무와 직인을 인계인수한 장소로 사용하던 교구장터가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왜장 고시니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부산포에 상륙하여 한양을 향해 가장 빠른 길로 새재길을 택해 밀양, 청도, 대구, 상주를 지나 이 재를 넘었다 한다. 당시 조정에서는 신립 장군으로 하여금 왜군을 막도록 하였으나, 새재협곡에서 왜적을 막지는 부하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충주 탄금대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를 교훈삼아 조정에서는 1594년 새재 중간 협곡에 제2관문을 설관하고 왜군의 재침략을 대비하였고, 병자호란(1636년) 이후 1708년 숙종 때는 제1, 3관문을 설관하고 석성을 둘러 쌓았다.



조령제3관문 앞에서

○ 신라때 옛고개 하늘재

신라의 북진을 위해 제8대 왕인 아달라이사금(阿達羅已師今) 3년(156년)에 열었다는 하늘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왕조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시기는 그 왕조의 전성기와 일치하는데, 한강 유역은 원래 백제의 발상지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475년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후 삼국통일이 되는 6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동안 백두대간을 경계로 신라와 고구려는 날카롭게 대립한다. 남한강 유역의 충주와 낙동강 상류의 상주는 고구려군과 신라군의 야전사령부가 진출해 있었다. 고구려는 북에서 남으로, 신라는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길을 뚫으며 '새로운 땅'을 염원했다. 그리하여 그 염원은 죽령이니 하늘재, 새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大美山과 黛眉山

조선시대 영·정조 때 발간된 <문경현지>에는 대미산을 '문경현제산지조(本縣諸山之祖)'라는 것과 함께 한문으로 '黛眉山'이라 적은 기록이 나와 있다. 이것은 '검푸른 눈썹 산'으로 풀이되나 <조선환여승람> (1936년 간)에는 이퇴계 선생께서 '大美山'이라 이름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현재에도 '大美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